

세상사는 과연 제로섬게임일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더러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또 관계된 개인이나 집단의 대치양상에 따라 제로섬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진리이다.

### 국민 불모 의료대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로섬게임이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로서는 곤란하다. 제로섬게임은 미개한 사회의 전형적 갈등양상이다. 나 하나 더 먹기, 상대방 입속의 떡 빼앗아먹기, 너 죽고 나 살기의 제로섬게임은 성숙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인류의 발자취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로섬게임은 종종 일어난다. 왜? 그것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그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원색적 이해관계의 추구는 갈등의 증폭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문제의 해법은 타협과 상생의 길의 모색에 찾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갈등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다. 둘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의 추구이다. 갈등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즉각적 이해관계의 추구는 극한대립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전개 및 조정과정에서 협의의 즉각적 이해관계 당사자를 뛰어넘는 대의와 이를 전지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조정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야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에는 엄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또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의 틀을 뛰어넘는 상위의 이해관계를 상기시킬 수 있는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의약분업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의약분업의 궁극적 이해관계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실종되어 있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소동을 벌였는지 조차 불분명하게끔 사태를 몰고 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의약분업의 즉각적 당사자는 의사, 약사, 제약업체, 의료보험당국이다. 문제가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적 균형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정부는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히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두고 사전 조정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밀어붙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 사태를 제로섬게임으로 몰고 갔는가? 진정 국민을 불모로 삼은 것은 정부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대우방식은 어떠한 관점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원한다면, 스스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는 행위를 택하지 말아야 했다.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도 잃은 것이 많은 선택이었다.

### 해법은 타협과 상생

뿐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익집단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광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극단적 이기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유럽과 일본의 시위문화로부터 교훈을 얻어야겠다. 이해관계 상충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타협의 자세, 장기적 관점의 대화와 있어야 집단간의 갈등이 공존과 상생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생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김병관  
 (이주대 사회학과 교수)

## 사이버 세계 '죄책감 없는 행위' 부추긴다

### 음란-폭력-도박 '사이버 3惡'

"그대들이여, 마음이 사뽀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악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든다." 이 말씀은 <불반니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중 '제자들'을 '그대들'로만 바꿔 인용한 것이다. 아마도 부처님이 현세에 있었다면 사이버 윤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저 옛 성현이 삶의 원칙을 얘기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악(惡)은 사회제도와 규범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질러지고 있는 각종 비도덕적인 행위 중 음란, 폭력, 도박은 사이버공간의 3대 악(惡)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가 유행하면서 장물거래를 치는 등 인터넷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죄책감 없는 행위'를 부추기는 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지난해말 정보통신부의 국가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정보 중 약 10%가 음란물이며, 음란사이트만도 10여만 개에 이르고 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성폭력

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청행위는 물론 누드모델 사진이나 성행위를 묘사한 비디오와 사이버섹스에 이르기까지 이미 위협수위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원조교제의 마당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행위도 심각하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난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냄으로써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에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유없이 악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이버 조폭'도 생겨났다. 이런 사이버 폭력은 실제로 두들겨 맞거나 돈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한 좌절감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이 느끼는 피해감은 실제 폭력 이상이다.

사이버 도박도 연간 수백만 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 연계된 국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도박을 즐

기는 등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꾼만도 100만 명이 이를 정도. 게다가 관공서나 기업체, 학교 할 것 없이 사회 구성구석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그 폐해를 짐작케 한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가 활기를 띠면서 음란물과 장물도 거래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음란 CD 400여장을 판매했다가 구속됐고, 전직 대학강사는 출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경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의 특성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범부들은 욕심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심에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잡아함경)

개를 우리 인간에, 기둥을 인터넷에 비유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끈만 끊으면 된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끈은 갖가지 유혹이요, 폭력의 근원이다. 사이버 시대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더욱 가까이 와 닿는 것은 평범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 기독교·힌두교 등 12개 종파

## '종교유엔헌장' 서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자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고 말했다 하자, 비구는 그 말을 듣거나 듣지 않지도 말고,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람에게 말하라. "어떤가,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너의 글귀는 이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사람이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네 글귀는 이러하다"고 하면,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마땅히 그 사람과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을 하지 말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라는 동일한 물과 젓다. 여래의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 등불로 유래한 인연을 얻어야 한다.

<청정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6월 25일 기독교·힌두교·유대교 등 전세계 12개 종파 대표들이 미국에서 모여 '세계종교연합헌장(URIC)'에 서명했다. 더욱이 URIC가

타 종교인에 대한 공격적인 포고 금지 등 21개 항목을 발표하고 상호간의 교류 및 각 종파간 이해방안을 협의한 것은 <청정경>의 부처님 말씀과 그 뜻이 같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성과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종파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공격적인 선교활동과 타종교 비방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URIC 참성을 계기로 국내의 종교간 화합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각 종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 민공

우리 마을 지키기 전국 마늘생산 농민 2000여명이 6월 27일 서울 중구대신동 부근에서 전국 마늘생산농가협의회대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측의 무역보복 조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마늘생산 농민들은 "99년 한국의 중국산 마늘수입이 4년 전보다 9배 이상 늘어나 한국 마늘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긴급관세 부과는 당연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결식아동돕기 국토대장정**  
 목원대생 54명  
 대전 목원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한 결식아동돕기 국토대장정에 나서 갈채를 받았다. 이 학교 학생 54명은 26일 지리산을 출발해 남원시~진안군~무주군~금산군 등을 거쳐 학교에 이르는 총 210km의 대장정을 마쳤다. 학생들은 대장정 1km마다 학생회 임원들의 장학금 가운데 1만원씩을 적립하고 교수와 직원들로부터도 성금을 모아 대장정 이후 대전시교육청 등에 기탁할 것이라고 한다. 또 대장정 기간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수발이나 시 등을 작성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대장정 코스 주민들에게 결식아동돕기 홍보활동도 펼쳤다.

### '수돗물 불신' 더 늘었다

"식수 부적합" 70% 환경부, 국민식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등 수돗물 불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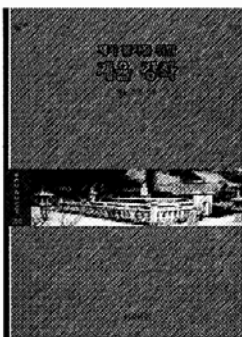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97년의 61%에서 10%나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오염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정부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는 탓도 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한다.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물론 바.된.치와 어극도 없애.진제.는.정인.으로.사.타의.부.인.행.작을.인용.합니다. 주소.총.로.가.전.세.110-0 전.화 (02)737-0085 팩스 (02)737-0086

##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해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민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교정경, 염상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제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기경, 불설팔관제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시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나뎃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상갈라경, 육아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회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회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합회

#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